방탄소년단 미국서 통했다

빌보드 차트 1위 '승승장구'
전문가들 "K팝 성과와 별개"
트와이스 등 아이돌 잇단 진입

그룹 방탄소년단〈사진〉의 빌보드 차트 1위는 팝의 본고장인 미국 주류 시장에서 '통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가요계에선 이들의 빌보드 정상이 한국 대중음악 역사의 새 이정표이자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현재로선 방탄소년단의 경이로운 성과이며, K팝의 미국 주류 시장 진입으로 확대 해석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 빌보드서 앨범 7장 연속 메인차트 진입… "지속성 차별점"

그간 빌보드 메인 차트('빌보드 200', '핫 100')에는 여러 한국 가수가 이름을 올렸다.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는 빅뱅, 지드래곤, 태양, 씨엘, 엑소 등이 진입했으며, 싱글 차트인 '핫 100'에는 원더걸스와 7주 연속 2위를 차지하는 센세이션을 일으킨 싸이 등이 올랐다. 이들과 방탄소년단의 차별점은 이번 3집 '러브 유어 셀프 전 티어'까지 총 6장 한국어 앨범을 '빌보드 200'에 6연속 진입시키는 '지속성'을 보였다는 점이다. 지난 4월 일본에서 낸 앨범 '페이스 유어 셀프'까지 합하면 7연속이다.

아울러 일부 앨범은 차트 반짝 진입이 아니라 수주 간 머물면서 팀의 대중적인 인지도와 탄탄한 팬덤을 확인시켜줬다.

◇ "K팝 아닌, 방탄소년단 성과…싸이보다 큰 영향 기대감도"

가요계에선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1위'가 승전보를 넘어선 '대첩'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빌보드 정상은 가요계 수많은 뮤지션들의 이상이자 장벽이 높은 최종 목표처럼 상징됐기에 단순한 정상 등극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음악 전문가들은 K팝의 쾌거라기보다는 방탄소년단의 성과란 점에 주목했다.

대중음악 평론가 임진모 씨는 "K팝의 승리라기보다 현재로썬 방탄소년단이 지속적인 노력 끝에 주류 시장에 통한 성공"이라며 "특히 앨범차트 1위는 싱글차트 보다 음악적인 측면에서 한층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중음악 평론가 김 작가도 "방탄소년단은 K팝으로 묶기엔 이미 그 경계를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프랑스 AFP 통신 등 주요 외신들 "K팝의 새 역사를 썼다"

방탄소년단(BTS)의 '빌보드 200' 1위 소식이 전해지자 주요 외신과 할리우드 연예 매체들이 관련 뉴스를 발 빠르게 전했다.

프랑스 AFP 통신은 'BTS가 미국 앨범차트에서 K팝의 새 역사를 썼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BTS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했다.

AFP는 "이제 방탄소년단의 유명세를 평가절하하기 힘들게 됐다"며 "이들은 2017년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대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캐나다 출신 팝스타 저스틴 비버 관련 트윗량을 합친 것의 2배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도 "방탄소년단, K팝 앨범 최초로 미국 차트 석권"이라는 기사에서 관련 소식을 자세히 전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도 "방탄소년단은 한국 최고의 음악 수출 실적 중 하나"라며 "이들은 '아미'라고 불리는 헌신적인 팬덤을 기반으로 성장했다"고 썼다.

◇보아부터 싸이까지 K팝 도전…원더걸스가 메인차트 첫 입성, 이후 차트 진입 봇물

2001년 김범수가 히트곡 '하루'의 리메이크 버전 '헬로 굿바이 헬로'(HELLO GOODBYE HELLO)로 '핫 싱글즈 세일즈' 차트 51위로 처음 진입했다.

앨범 메인 차트인 '빌보드 200'의 벽을 넘은 건 '아시아의 별' 보아다. 2008년 10월 데뷔곡 '잇 유 업(Eat You Up)'을 디지털 싱글로 선보인 보아는 이듬해 3월 현지에서 정규 1집 '보아'(BoA)를 발표, 이 차트에서 127위를 기록했다.

'핫 100' 진입에 성공한 가수는 걸그룹 원더걸스다. 국내에서 인기 절정이던 2009년 10월 히트곡 '노바디'(Nobody)로 '핫 100' 76위를 차지한 것. 이후 빅뱅이 2012년 미니음반 '얼라이브'(Alive)로 150위, 지드래곤이 같은 해 솔로 미니음반 '원 오브 어 카인드'(ONE OF A KIND)로 '빌보드 200'에서 161위를 차지했다.

특히 싸이는 2012년 세계적으로 히트한 '강남스타일'로 '핫 100' 7주 연속 2위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싸이의 쾌거는 현지에서 음반을 발표하지 않고 한국에서 발표한 한국어 음원으로 메인 차트에 올랐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었다.

이후 K팝 열풍에 힘입어 많은 아이돌 가수들이 빌보드를 장식했다. 소녀시대, 빅뱅, 투애니원, 슈퍼주니어 2세대 아이돌을 비롯해 트와이스, 레드벨벳, 갓세븐, 몬스타엑스, NCT 등 수많은 후배 그룹이 '월드 앨범'차트, '소셜 50' 차트 등 다양한 분야를 점령했다. /연합뉴스

천생 배우 **손예진**

'밥 잘 사주는 예쁜누나' 종영

"특별한 작품으로 남을 것"

손예진(36·사진)은 천생 배우다.

2001년 드라마 '맛있는 청혼'으로 데뷔해 연기 18년 차가 되기까지 스크린과 안방극장을 쉬지 않고 오가며 본업에 충실해 왔다.

덕분에 그의 빛나는 미모는 다른 'CF스타'들과 달리 관객이나 시청자가 그의 연기에 더 몰입할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됐다.

"쉬지 않고 연기하는 제 에너지가 신기해요. 그러면서도 어떤 순간엔 너무 두렵죠. 경력이 쌓이면서 여유가 생기는 건 좋지만, 연기자로서 자신을 도태하게 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연기 열정이 사그라지지 않았으면 해요."

JTBC 금토극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를 마치고 최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만난 손예진은 천생 배우라는 말에 기뻐하면서도 복잡한 내면을 솔직하게 털어놨다.

영화 '클래식'(2003)부터 '내 머리속의 지우개'(2004), '작업의 정석'(2005), '아내가 결혼했다'(2018) 등과 드라마 '여름향기'(2003), '연애시대'(2006), '개인의 취향'(2010) 등에 이르기까지 손예진의 발자취를 보면 모두 히트작이기도 하지만 그 나잇대가 아니면 할 수 없었던 작품이라는 공통점도 발견할 수 있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의 진아도 딱 제 나이였잖아요. 그 나잇대에만 가질 수 있는 공감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작품도 결정했고요. 제가 연기의 기술적인 부분이 좋아졌다고 지금 '클래식'을 찍을 순 없잖아요. 항상 제 나이에 맞는 역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엄마 역할을 할 때도 그러고 싶어요."

그는 또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새로운 연기를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도 항상 있다"며 "사람들이 보기에 예쁘고 대중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캐릭터보다는, 내가 봤을 때 정말 재밌는 작품을 한다. '이걸 한 뒤에 내 이미지가 어떻게 될까' 같은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손예진은 수많은 작품에 출연했지만,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는 특별한 작품으로 남을 것 같다고 했다.

"'상어' 이후에 오랜만에 하는 드라마라 걱정도 많았지만, 안판석 PD님에 대한 신뢰로 용기를 냈어요. '원 신(scene) 원 컷(cut)'을 고집하셔서 부담이 크긴 했지만요. (웃음) 대신 일상적인 대사들이라, '꼭 이것만 해야 한다'는 생각 없이 편안하게 연기했어요. 아파트 앞, 영화관, 놀이터, 차 안, 이렇게 현실적인 곳에 있으니 현실적인 연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봄비를 좋아하는데, 이번에 봄비가 정말 많이 왔어요. 우리 드라마에도 비 오는 장면이 많죠. 여러모로 2018년 봄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서른 중반에도 미성숙한 진아의 모습에 답답해하는 시청자도 적지 않았다. 손예진 역시 많이 답답하고 아팠다고 했다.

"저 역시 진아가 안타깝고 짠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든다고 꼭 성숙한 건 아니잖아요. 드라마의 끝도 진아가 성장을 마친 지점이 아니라,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 같아요. 진아와 준희(정해인 분)가 사랑하던 순간 역시 판타지보다는 화양연화 같단 생각을 했어요. 가장 좋은 순간을 찍으면서도 '앞으로 힘들 날만 남았다' 생각했죠. 극적인 요소들을 모두 제외하고 16부작을 끌고 갈 수 있을까 고민도 했지만, 그게 우리의 현실인 걸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도 분명히 존재하는 미묘한 차이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손예진은 이번 작품에서 힘을 많이 뺐다고 한다. 그는 "오랜만에 드라마 하니까 열심히 연기해야지 다짐하면 뭔가 촌스러워질 것 같아서, 최대한 뭘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연기했다"며 "오래 연기하다 보면 기술적인 부분들이 발달해 느끼해질 수도 있는데, 기름기를 빼고 싶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2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⑥	00 KBS 뉴스 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⑦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전생에 웬수들	30 KBC 모닝 730
⑧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어영차 바다야	25 닥터 365 30 나도 엄마야
⑨	30 KBS 뉴스	00 파도야 파도야 40 여유 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⑩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검법남녀 (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⑪	00 방송기자클럽 서울시장 후보 초청토론회	00 우리가 만난 기적 (재)		00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김문수
⑫	00 KBS 뉴스 12	05 생생정보 스페셜	00 12 MBC 뉴스 20 2018 지구촌어린이돕기 희망더하기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톡톡 보험설계 (재)
①	00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50 다큐 공감 (재)	00 1 대 100(재)	25 가자! 낭만 고향 (재)	55 닥터 365
②	40 코리언 지오그래픽 플러스 (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15 통일전망대 55 프리파라 3	00 뉴스브리핑
③	05 생로병사의 비밀 (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뽀뽀뽀 모두야 놀자 55 하하랜드 2 스페셜	
④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55 제보자들(재)		00 고향견문록 스페셜
⑤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뉴스콘서트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⑥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영재발굴단 (재)
⑦	00 KBS 뉴스 7 30 KBS 뉴스 7(광주) 35 6.13 프로젝트 공생	50 인형의 집	15 전생에 웬수들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10 생방송 TV블로그 꼼지락
⑧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벌24 55 1 대 100	55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⑨	00 KBS 뉴스 9			
⑩	00 지방선거 경기지사후보 KBS초청토론	00 우리가 만난 기적	00 검법남녀	00 기름진 멜로
⑪	20 KBS 뉴스라인 4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10 하룻밤만 재워줘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부
⑫	00 KBS 뉴스 10 서울국제 여성영화제 기획 독립영화관〈여배우는 오늘도〉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100분 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아시아 풍속 기행〉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07:30 로이와 함께 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07:45 출동! 슈퍼윙스2
08:00 딩동댕 유치원1·2
08:30 허풍선이 과학쇼(재)
08:45 방귀대장 뿡뿡이
09:00 몬카트
0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 화산섬의 비밀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쥬
09:40 메디컬 다큐-7요일(재)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뉴스
12:10 행복한 교육세상
13:00 다큐 오늘 〈와게니아족의 거대한 통발낚시〉
13:10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강가의 침입자 웰스메기〉
13:40 빡치미(재)
14:3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재)
15:00 호기심 나라 오키도
15:15 파프리카
15:25 그림 그려줘 루이
15:45 부릉!부릉! 브루미즈
16:00 냉장고 나라 코코몽
16: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6:30 방귀대장 뿡뿡이(재)
16:45 딩동댕 유치원1·2(재)
17:15 로이와 함께 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17:30 마샤와 곰
17:45 띠띠뽀 띠띠뽀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4
19:00 몬카트
1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19:30 EBS뉴스
19:50 극한직업 스페셜
20:40 세계테마기행
21:30 한국기행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23:55 빡치미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9일(음 4월 14일 庚申)

子 36년생 기본적인 것과 중요한 것을 확연히 구분해 두어야 한다. 48년생 일득일실 하리라. 60년생 전환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질 것이다. 72년생 실수로 인한 누락이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자. 84년생 전체적인 판세에 따르도록 하라. 행운의 숫자 : 13, 85

丑 37년생 주체에 따라서 천양지차가 될 수도 있느니라. 49년생 전환점이 될 만한 사건이 발생한다. 61년생 특별히 꼭 집어서 강조해 둘 필요가 있느니라. 73년생 결과는 대동소이 할 것이니 형편에 따르라. 85년생 일취월장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8, 05

寅 38년생 상당히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국면이다. 50년생 만사여의하게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흐름대로 임하라. 62년생 말을 듣고 나면 상당한 충격에 빠질 수 있다. 74년생 변수는 없다. 86년생 현재 당면한 일부터 먼저 처리함이 맞다. 행운의 숫자 : 98, 06

卯 39년생 우회하더라도 지장이 없다. 51년생 물고기가 홀연히 변하여 용이 되는 형상이다. 63년생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 예의 주시하자. 75년생 상대의 배려에 뜨겁게 감동 받게 되리라. 87년생 관계를 떠나서 냉정히 돌이켜 볼 일이다. 행운의 숫자 : 45, 92

辰 40년생 대로를 걷는 것이 편하고 빠른 길이다. 52년생 몰라도 될 일을 알게 되어 걱정하리라. 64년생 일시적인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76년생 기민하게 응대해야 한다. 88년생 무의식중에 착오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신경 쓰자. 행운의 숫자 : 85, 62

巳 41년생 쉽게 결론 내려질 수도 있다. 53년생 복잡하다. 65년생 호기가 주어졌을 때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7년생 부수적인 요소들에까지 신경 쓰는 것이 옳다. 89년생 소강상태를 벗어나면서 완만한 호전의 기미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97, 27

午 42년생 바람직한 형태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크다. 54년생 무의미 했던 것이 새로운 가치를 얻게 되리라. 66년생 긴장을 늦추지 말자. 78년생 아무런 이상도 없으니 안심해도 된다. 90년생 용이한 결과가 도출 될 수 있겠다. 행운의 숫자 : 48, 61

未 43년생 닭 쫓던 개가 될 수도 있다. 55년생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느니라. 67년생 만사를 제쳐 두고 도와줘야 할 일이 생긴다. 79년생 시선을 사로잡는 매력이 작용할 것이니 현혹되지 말아야겠다. 91년생 지속성이 득리로 이끌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6, 43

申 44년생 귀한 이가 떠나거나 귀중품이 사라질 수도 있다. 56년생 애를 먹겠다. 68년생 절실하다면 체면 불구하고 요청하라. 80년생 객관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허사이다. 92년생 인식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67, 40

酉 45년생 틀린 것이 섞이어 있으니 잘 살펴봐야겠다. 57년생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아니 되느니라. 69년생 사전에 미리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 81년생 쇠잔했던 운로가 소생하기 시작한다. 93년생 외관이 좋다면 실속도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90, 70

戌 34년생 진정성을 가지고 임해야 소통할 수 있느니라. 46년생 융통성을 발휘해야 할 때다. 58년생 겹치는 일이 많아서 혼란스러울 수 있다. 70년생 부분적인 것이 큰 국면을 가려서는 아니 된다. 82년생 소모적이므로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행운의 숫자 : 23, 95

亥 35년생 화가 복이 되어 돌아올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47년생 궁극적으로 통합될 수도 있는 마당이다. 59년생 상승 거점을 마련하는 전환기에 와 있다. 71년생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불을 보듯 뻔하다. 83년생 상대의 반응이 시원치 않겠다. 행운의 숫자 : 05, 72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